

'드림콘서트'측 "동방신기, 갈등 원만 해결 한류제왕 귀환하길"

입력 2009. 9. 14. 15:23 · 수정 2009. 9. 14. 15:23



KOREA

사랑한다 대한민국 2009 드림콘서트의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일본 국내 및 일본인 대상의 2009 드림콘서트의 프로모션은 일본 공식후원사 (주)KJC커뮤니케이션스가
 독점프로모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본관광객의 경우 당일 콘서트 입장시에는 엄격한 ID체크를 시행할
 예정임으로 KJC커뮤니케이션스 발행의 티켓이 아닌 경우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09드림콘서트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프로모션 이외의 것은 불법입니다.
 2009드림콘서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뉴스엔 박세연 기자]2009 드림콘서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콘서트 참여를 독려했다.

2009 드림콘서트 측은 9월 14일 "10월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빅뱅 2PM 슈퍼주니어 쥬얼리 소녀시대 MC몽 샤이니 2NE1 포미닛 등 2009년 가요계를 강타한 대한민국 대표가수 15팀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멤버 3인과 소속사의 마찰로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동방신기에 대해 드림콘서트 측은 "드림콘서트에 대한 팬들의 기대도 크지만 우선 음악산업과 한류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동방신기 멤버들과 소속사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동방신기 멤버 모두가 한류의 제왕으로 하루 빨리 귀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지난 8일 리더 재범이 탈퇴한 2PM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드림콘서트 측은 "현재로서는 원안(출연)에서 달라진 건 없다. 다만 소속사 JYP 측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2009 드림콘서트 홈페이지에 리더 재범이 빠진 2PM 사진이 게재돼 있다.

한편 소속사 JYP 측은 2PM의 차후 활동 여부에 대해 "논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멤버 개별 예능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박세연 psyon@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